꼭 알아둡시다

「族譜」란 무엇인가

南岡 金俊永〈中央宗親會理事〉

(一)族譜의 기원

族譜란 氏族의 父孫중심의 血統史를 요약, 기록한 것으로 그간 始祖로 부터 現生存에 이르기까지 史蹟과 行蹟을 明記한 氏族의 歷史이고 家寶로 代代孫孫 繼承保存한 册이다。

修譜事業은 一世代 약30년 間隔으로 승계되는 것이다。

본래 族譜는 中國으로 부터 始作되어 北宋의 大文章家인 蘇洵과 그의 아들 蘇軾, 蘇轍 兄弟에 의하여 편찬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歷代王家의 世譜가 있었을 뿐이며 士大夫 집에는 겨우 家牒이나 家乘만 마련되여 오다가 李朝 成宗(1476年)때 와서 族譜가 처음으로 印刷되기 始作하였다。

특히 직접 영향을 준 것은 安東權氏成化譜(徐居正이 기술한 原文)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宗法과 族牒이 없고 巨家大族 兩班의 子孫이라야 벼슬길에 오를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규제되여 있었기 때문에 自己先祖의 顯達을 표시하기 위하여 만들게 되었다。

다음은 文化柳氏嘉靖譜 明宗7年(1562년) 완전체계화 되었다。

文宗때는 宗簿寺에서 親族의 譜牒과 殿內의 給事를 맡았으며 源譜錄 宗室譜牒이 營制上 중요시됨에 貴族間에 修譜의 기운이 조성되었다。

그러므로 同族의 여부와 소목의 서열과 寸數의 분별이 昭詳하게 알게 되고 先祖와 자신의 歷史를 後世에 전하므로서 후손들로 하여금 귀감이 되게하여 役事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우리 順天金氏는 英祖40年(1764) 甲申譜가 創刊되고 丁巳譜(1857) 丁卯譜(1927) 丁酉譜(1957) 甲子譜(1984)등 5차에 걸쳐 修譜를 하였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여 漏譜된 분들이 있으리라 여겨진다。

나라밖 近代 族譜를 한번 살펴 보면 美國의 黑人 작가 알렉스 데일러는 『뿌리』(祖上)라는 册를 發刊하여 全人類의 뿌리찾기 운동에 좋은 계기가 되여 잊혀져 가는 숨조사상을 불러 일으키는데 밝은 등불이 되였다。

또 선진각국의 종합대학에는 系譜學科가 設置되였다고 하며 약 1세기전에 창설된 世界系譜學協會에서는 근 40개國으로부터 6백餘種의 族譜를 수집하여 美國솔트레이 콘市 부근 地下300m에 위치한 石室에 완벽하게 保管하고 3백석의 열람석도 설치하여 일반에게 열람케 한다고 한다。이 얼마나 귀중한 보람이라 아니 하겠는가。

族譜關係 기록도 電算化되어 각자 적성 유용이 용이하게 될 시기도 멀지 않다고 전망된다。

(二)族譜의 種類

・家乘=自己中心으로 해서 편찬하되 始祖로부터 시작하여 直系尊屬과 卑俗에 이르기까지 이름과 諱字와 事蹟을 기록한 것인데 이중 事蹟을 傍註 또는 傍書라고 한다。

・派譜=派祖로부터 어느 派屬만의 事蹟만을 수록한 譜牒

傍註는 譜牒上 요식행위도 필요불가결한 제사함이라 본인의 字및 號, 生年, 死亡年月日, 本人의 행적, 배우자표시, 배우자는 配라고 하고 本貫, 姓名, 生年 父 祖 曾祖, 外祖의 표시와 死去하였을 때는 死亡年月日, 墓地의 所在(雙墳 合葬)등과 坐向

・世譜=두 宗派 이상의 同譜(合譜)로 편찬하였음을 말한다。

・系譜=한 家門의 血統關係를 표시 하기 위하여 이름이나 諱字만을 系統的으로 나타낸 도표이다。

・族譜=貫鄕의 單位로 같은 氏族의 世系를 수록한 譜牒으로서 한 家門의 역사를 표시하고 家系의 連續을 實證한 것이다。

・大同譜=鼻祖밑에 中始祖마다 각각 다른 派를 가지고 있는 氏族間에 同譜로 종합편찬한 族譜이다。

・家譜家牒=편찬 內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집안에 所藏되여 있는 家牒

(三)譜牒의 術語

・始祖와 鼻祖=다같은 말로 第一初代의 先祖를 말한 것。

・中始祖=시조이후 쇠퇴한 가문을 다시 일으킨 조상

・先系=始祖로부터 대대로 이어가는 系統血統의 차례를 말하는 것。

・世와 代=始祖를 一世로 하여 차례대로 정하는 것이 世이며 自己를 뺀 나머지를 차례대로 따지는 것이 代이다。例로 父子의 사이가 世로는 二世지만 代론는 一代다 代不及身 이라는 말

・先代와 末孫=祖上의 여러 代를 통털어 先代라 하고 先代의 반대로 後代, 즉 下系의 子孫들을 末孫이라 함

・御字와 諱字=윗어른의 名字를 말할 때 生存한 분을 御字라 하고 作故한 분을 諱字라 한다。 웃어른의 名字에 대하여는 御字이전 諱字이전 글자사이마다(字)字를 넣어서 부르거나 글자를 풀어 읽어서 말하기도 한다。

・行列=같은 血族사이에 世系의 위치를 表示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家門마다 각각 달라서 甲乙丙丁 十干順과 子丑寅卯의 十二支順으로 定한 家門도 있으며 一二三四數字 順으로도 있으나 金木水火土 五行順으로 시행하는 例가 가장 많다。

・生卒=生은 出生을 말하고 卒은 死亡을 말한 것이다。

・配位=배우자를 말한 것으로 생존시는 室人이라고 하고 死後에는 故室이라 하는데 傍註表示할 때는 生死間 配字로 統一表示한다。

이동사항을 알려주십시오

종친회의 각종 회의 및 행사에 대한 안내는 물론 종보(宗報) 발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91년 3월이후 주소 또는 전화번호 변경이 있는 분들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사항 신고서

・종파와 성명

・주소와 우편번호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서울 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46의1(태평빌딩) 순천김씨 중앙종친회

(우편번호 121-040)

전화:(02)718-0529

漢瑞定期貨物株式會社

會長 金相容

서울特別市 中浪區 面牧洞 505~11 (한서빌딩 301)

代表電話 (02)495~9933

FAX(02)495~5768

FAX(02)495~5768

大邱支店 (053)551~8261

先祖위선사업 쾌거

「清德齋」현액

水北亭公齋室

▲ 건축비 5천만원, 묘역정화사업비 1천만원등 총6천만원의 예산으로 만1년만에 준공된 수북정공齋室 「청덕재」의 말끔한 단장된 모습

水北亭公의 諱는 興國이요 字는 景仁이시며 雅號는 水北亭이시고 淸德齋는 水北亭公의 墓下에 세워진 齋室의 名號이다。

公은 嘉靖丁巳年에 通訓大夫 司圖署別提를 지내신 鷹孫公의 三子로 태여나 文科에 登科하신 후 弘文正字 司諫正言과 書狀官을 역임하시고 밖으로는 寧邊, 津陽, 鞍山, 楊州牧使로 혁혁한 행적을 남기셨다。

公께서는 仁祖反正당시 請社功臣인 族姪 金昇平公(윤)과 文友 李延平公(李貴)이 反正참여를 권유하자 「나는 이미 光海의 녹을 받은 신하로서 伯夷叔齊의 절의를 지키겠으니 공들은 伊尹과 霍光의 功을 세우라」고 거절하신후 白馬江畔으로 낙향하시어 水北亭생활과 우의를 깊게 하시고 후진양성에 진력하셨다。

仁祖卽位후 副提학으로 召命되였으나 이를 사양하시고 仁祖元年(1923) 3월18일 천수 67세를 일기로 하세하시니 公의 마지막 임지였던 楊州牧 現 京畿道 楊州郡 隱現面 道下里 杏谷의 幽宅에 모셨다。

杏谷에는 公의 祖父이하 胤子까지 4대의 선영이 계시고 齋舍로 韓屋草家 5間이 있었으나 붕괴위험이 있어 1968년 戊申에 철거하고 수년간 복원치 못하고 지나던중 10대손 明在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사재로 가재옥을 마련하여 근 20여년간 齋舍로 유지되였으나 더 이상 존치가 어려워 1990년 庚午 5월14일 淸德齋新築 및 墓域淨化事業推進委員會(會長 善貞)를 조직하여 齋室 295坪과 3間 및 부속건물 11평의 건축비 5천만원, 묘역정화사업비 1천만원의 공사비로 1991년 辛未 5월30일에 준공하니 회장 善貞宗親을 비롯하여 상임고문이신 一貞宗親 및 임원진 또는 獻誠하신 후손들의 崇祖心을 높이 찬양하며 자손만대에 先祖의 偉德이 永永世世하기를 仰慕하고 爲先의 龜鑑이 되기를 바라며 淸德齋舍를 懸板하였다。

「이름」과 「稱號」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이 있어 호적에 등재하고 족보에 실어서 한평생 쓰이고 불리게 되며 죽어서는 각자의 공덕과 덕망에 따라 길이 청사에 또는 보첩에 남게되어 이름은 실로 본인에게는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이름, 즉 성명외에도 여러가지로 불이게 되는 이름을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성명(姓名): 성(姓)과 이름(名)으로서 누구나 한평생 쓰이는 성과 이름이다。
2. 별명(別名): 본 이름외에 그 사람의 생김새나 버릇따위, 또는 자손이 귀한 집에서는 장수하라고 천한 이름을 지어부르기도 하였으니 예컨대 「개똥이」, 「쇠똥이」 등으로 따로 지어부른 이름으로 장성하면 자연히 쓰지않는다。
3. 아명(兒名): 어릴 때 본이름외에 부르는 이름
4. 원명(原名): 戶籍上의 실제 姓名을 일컫는 뜻으로, 특히 行列字를 쓰지 않는 이름을 족보에 올릴 경우 傍註에 原名, 元名, 本名 등으로 기재한다。
5. 관명(冠名): 冠禮때에 지은 이름으로 어른이 되어서 부르는 이름이다。 따라서 이때부터 兒名은 부르지 않는다。
6. 사명(賜名): 功勳이 있어 國王으로부터 특별히 내리는 이름。
7. 자(字): 본 이름외에 부르는 이름으로서 冠名이나 號와 비슷하다。
8. 함자(啣字): 상대방의 이름을 높임말로써 啣字(함자) 또는 尊啣(존함), 官啣(관함)이라고도 한다。
9. 관명(官名): 벼슬 이름。 職名(직명)은 職責上의 職位를 말함
10. 호(號): 대개 예술가들이 본이름외에 따로 지어부르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號를 더욱 높일때는 雅號라고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속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불러야 적당한 표현인가 한는 문제로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본래 號는 남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기를 꺼려한데서 유래한 것으로 상대방을 號로서 칭할 때 노소간 서로의 위치에 어울리게 되여 人格을 존중해 줄 수 있다。
11. 택호(宅號): 이름을 피하고 벼슬이름이나 시직, 장가간 고장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 또는 그 집의 칭호
12. 봉호(封號): 나라에 功을 세운 사람에게는 國王으로 부터 「功臣」이란 稱號가 내려지거나 ○○君으로 封君되는 것을 封號라 한다。
13. 시호: 卿·相(정승) 또는 儒賢들의 功德을 기려주는 뒤에 주는 이름이 諡號이다。
14. 존호(尊號): 王이나 王妃의 生前의 德을 稱頌하여 올리던 稱號。
15. 휘(諱): 죽은 사람을 높여 부르는 이름。

例示: 襄景公
襄景公의 諡字는 乙實이시고
賜名은 숭주이시며
官名은 左議政
雅號는 月潭
封號는 平壤府院君
諡號는 襄景公이시다。

一無軒 金炳鎰
〈中央종친회 간사장〉

世一合同法律事務所

代表 辯護士 **金 采 庸**

서울特別市 江南區 三成洞(貿易會館 4層 403號)
電話 551~0305
自宅 서울特別市 鍾路區 平倉洞 468~6
電話 352~7949

哭 一庵 金鍾起 族叔

金 采 庸 〈中央宗親會명예회장〉

族叔께서는 壬申 2月23日 만양시 자택에서 숙환으로 서거하시고, 25日 경북 예천군 용문면 원유동 선영하에 안장하셨습니다.

회고하면 族叔께서는 지극히 인자하시고, 원만하시며 특히 애족심이 누구보다도 강하시어, 항시 일가들의 괴롭이라면 원근과 친소를 막론하시고, 친절과 봉사로서 종친사업을 평생사업으로 삼아오시였습니다.

일찌기 大邱에 계실 때에는 順天金氏 대구지방종친회를 조직하여 오랫동안 그 지방의 일가친족들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는데 心血을 경주하여 지성껏 봉사활동 하시었습니다.

서울에 오신후 1986年 6월 15일 서울과 경기일원의 順天金氏자손들 약 1만여명(약 2천세대)을 총 망라하여, "서울 종친회"를 창립하였습니다.

당시 族叔께서는 70노구임에도 불구하시고, 서울, 경기일원에 걸쳐서 비가오나, 눈이오나 일가집을 직접 방문하시고 친족집을 거의 빠짐없이 찾아다니면서 종친회의 설립에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물론 한푼의 보수도 없이 자비로써 1年에 걸쳐 버스와 지하철등 대중교통을 매일같이 이용하면서 산천수전의 어려운 고비를 다 겪으시며 종친들의 숙원인 "서울 종친회"를 조직하여 운영하시었습니다.

그후 族叔께서는 한걸음을 더 [illegible]가 우리 順天金氏도 전국적인 "중앙종친회"를 창립해야 겠다고 누차 주장하시고 1988년 5월9일부터 동년 5월29일, 동년 6월3일, 동년 7월19일, 동년 12월20일등 전후 5회에 걸쳐 서울종친회 총회와 이사회등을 열어 중앙종친회조직을 결의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89년 4월29일 서울종묘에서 전국 종친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중앙종친회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고 동년 9월24일 드디어 서울 현암빌딩 28층에서 전국 종친 1천여명이 지켜 보는 속에 우리의 숙원사업이던 『順天金氏 中央宗親會』를 성대하게 창립, 발족케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族叔께서는 이렇듯 서울종친회의 창립운영은 물론 中央宗親會를 조직, 운영함에 있어서 전후 7년여에 걸쳐 전심전력으로 다하신 것입니다.

族叔께서 生前에 남기신 그 功勞야말로 실로 눈물겹게 지대하신 것을 우리 종친들은 다같이 감사하게 생각하여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생전의 鍾起종친은 서울종친회 및 중앙종친회의 창립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창립총회에 참석한 모습.(좌로부터 두번째)

族叔께서는 서울종친회 총무를 오랫동안 맡아 오시면서 각별히 종친들 간의 친목사업을 도모하시었고 또 종친회 기금도 많이 마련하셨습니다.

특히 宗報와 세적등을 발간하여 종친에게 분포하는등 뚜렷한 업적을 수행하시었습니다.

『順天金氏世蹟』 발간사업 당시 수개월에 걸쳐 전국 각파 현조의 분묘와 신도비, 제각, 정문, 영정, 유물등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종친 在根氏와 함께 전국을 역방하여 기어이 이 훌륭한 『世蹟』 발간사업을 성공시킨 공로는 우리 종친의 가슴속에 살아 남을 것입니다.

族叔께서 가신후 그분과 같이 성실과 열심 그리고 희생적으로 종친사업을 추진하신 생전의 열성과 공기, 후덕하셨던 인품을 상기하면서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生也一片浮雲起、死也一片浮雲滅
浮雲自體本無實 生死去來亦如然

사람이 산다는 것은 한조각 뜬구름이 이는 것 같고, 죽음이란 한조각 뜬구름이 사라진 것 같다.

뜬구름 자체가 본래 그 실상이 없으니 생사거래도 또한 이와 같이 허무한 것이 아닌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인생 살이는 실로 『會者定離』와 더불어 우리 인생의 무상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합니다.

族叔님의 명복을 거듭 빕니다.

「宗報」 제작에 참여합시다

投稿歡迎

종보는 종친여러분이 보시는 통신입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종보를 만들고자 하오니 여러종친이 다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종친여러분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 종사에 관련되는 행사나 활동상황
- 종친간 상부상조 및 미담
- 종친의 일화, 시 및 수필
- 기타 종친에 두루 公知케할 사항

孝行·善行 宗親을 찾습니다

中央宗親會에서는 효행과 선행으로 사회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종친을 찾고 있습니다.

順天金氏門中이 孝行과 善行을 행함에 앞장서고 있는 뛰어난 家門일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宗報에 게재하고자 하오니 주변 미담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宗報編輯室〉

株式會社 東南特殊運輸

各種油類運送業

代表理事 金 東 洙

本社 全南 順天市 旺之洞 720
電話 0661－743－7125
自宅 全南 順天市 石峴洞 31~6
電話 0661－52－8441

울宗親會員 大宗事주진

始祖사적지 標石건립

工事費 서울宗親會서 부담
始祖 墓祀日까지 준공키로

서울 宗親會에서는 理事會와 任員會를 잇따라 열고 始祖史蹟地(승주군 주암면 주암리)에 宿願事業이던 「入口標石」을 세울것을 決議, 다음과 같이 事業計劃을 확정하고 뜻있는 宗親들의 協賛으로 이를 推進中에 있다。

다음은 事業計劃書임。

1。目的

전라남도 승주군 주암면 주암리(밤죽동) 山32番地 丑座原은 우리 順天金氏의 始祖이신 平陽君(諱 揔)의 墓所입니다。또한 墓下에는 影堂과 齋室(同源齋)등이 있는 由緒깊은 곳입니다。

始祖께서는 新羅宗姓으로서 官職이 引駕別監에 이르시었고, 憲安王代에 지금의 順天인(昇平, 昇州, 平陽)을 다스리게 되면서 順天으로 分貫하게 되었습니다。

昇平誌에 「金揔 有文武藝, 守平陽, 仁厚民樂, 附焉 因祀干, 府東進禮山, 安官祠」라 하였고 東國輿地勝覽에는 「金揔官至引駕別監死爲府城隍神」이라 기록하고 있어 生前에는 平陽地域(順天)을 다스리면서 箕子가 朝鮮에 傳한 三綱五倫과 六藝(禮·樂·射·御·書·數)를 國人에게 가르치시었고 死後에는 安官祠에 모시고 官員을 보내여 제사를 올리게 하고 사가(私家)에서는 公의 肖像을 모시고 사모하여 平陽의 守護神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그 影幀(조상화)이 1988年 12月21日字로 전라남도 지사로부터 전라남도 지방문화재 제27호로 지정받아 影堂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史實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사실을 나타내는 아무런 標識하나도 없어 始祖의 史蹟地를 찾는 우리 후손들의 발길을 헤매게 하는 경우가 허다히 있으며 이곳에 이웃하여 살고있는 他門의 후손들도 아무런 뜻없이 무심이 지나치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始祖史蹟地의 入口 적당한 자리에 入口를 표시하는 標石을 세울것을 順天金氏 서울宗親會가 第4次 理事會에서 決議하고 入口標石 建立事業을 推進하게 되었습니다。

2。位置

주암면 주암리 또는 창촌리의 路邊으로서 그 地點에서 사적지와 대로(고속도로)가 잘 보이는 곳으로 할 것。

3。面積

최소한 6坪으로 할 것。

文化財管理局이나 全羅南道와 昇州郡 당국의 협조를 받아 國公有地를 사용하거나 또는 私有地를 매입하여 사용하는 방법중 택일할 것。관계 당국과의 연락사항은 全南 光州地域 宗親會長인 金杜元 博士의 協助를 받을 것。

4。施工

八尺 4방에 자연석을 깔고 철근콘크리트로 기초를 만들고, 대석은 二줌으로 하고 標石은 花崗岩으로 둘레가 二尺4방, 높이는 15자로 한다。

題字는 (全羅南道 地方文化財 第二十七號 順天金氏始祖史蹟地 入口)라 음각한다。

5。工事費

順天金氏 서울宗親會에서 總工事費 約 5백萬원 전액을 부담하고 제막식에 소요되는 경비는 始祖史蹟地守護管理委員會에서 부담키로 함。

6。設計와 監理

設計와 監理 및 施工上의 모든 일을 同源齋 都有司 金炳鎰宗親에게 일임함。

7。工期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92년 4월8일(影堂 祭祀日)前까지로 하고 늦어도 92년 10월 26일(始祖 墓祀日)까지 竣工키로 할 것。

8。竣工式

참례하는 종친은 물론 관계당국과 인근부락인에게 기념품을 증정할 것과 도시락과 주효를 제공할 것(날자는 공정진도에 따라 추후 협의 결정함)

9。弘報

서울宗親會(會長 金喆熙) 會員들의 祖上을 받들고 宗親을 섬기는 큰 뜻을 높이 찬양하고 전국 종친은 물론 관계당국과 인근마을에 널리 알리는 일을 順天金氏宗報 또는 개별 초청장 등으로 하되 이 일은 中央宗親會가 맡아서 하기로 함。

協賛하신 宗親名單 별표(1991~1992 3。10現在)

◇협찬종친명단◇

貞根	淵斗	煥厚	浩喜
淳在	五柄	昌仁	南允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獨步·孤步이면 선비, 學德지면 「스승」

「獨步」 「孤步」 「學德」 「스승」

「獨步」 「孤步」 「學德」 「스승」

「獨步」 「孤步」 「學德」 「스승」

「獨步」 「孤步」 「學德」 「스승」

「獨步」 「孤步」 「學德」 「스승」

##

定州牧使公 神道碑제막식 가져

지난해 12월, 고양군 성석동서

우리의 顯祖 通政大夫 定州牧使 정주 鎭管氏 馬節度使 贈資憲大夫氏 曹判書 諱粹燎公의 神道碑를 1991年 12월19일 경기도 고양군 성석동 사달골 墓下 대로변에 세우고 지방유림을 위시하여 수백명의 후손들이 모여 엄숙하고 성대한 除幕式을 거행하였다.

神道碑는 龜趺와 龍頭로서 保寧의 산품오석들 碑身으로하니 그 정교한 공법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더우기 碑文은 配位인 豐山洪氏 후손 洪虢植선생이 찬하였는데 銘曰 惟公遺蹟在於石鄕 天降仁人其德維香 子孫振振 尙有餘澤 萬世遺蹟示此銘石이라 하였으며 글씨는 崔鳴吉先生의 後裔로 秋史體의 대가인 蓮坡 崔正秀先生이 쓰니 실로 天下에 보기드문 文章이요 名筆이라 이를 주선한 靑田 수연宗親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는 바이며 이 모두를 靑年會 總務 韓淵 종친이 후손들의 뜻을 한데모아서 이룩한 大宗事 일러라.

立石告由을 마치고 난 후 宗親會長宅에서 飮福禮를 겸한 점심식사에는 토속주에다 산해진미의 大宴會가 베풀어져 祖上님의 遺德을 기리고 宗親間에 和睦을 가졌다.

▲수백명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神道碑제막식

「金喜善 宗婦」孝心본보기

▲중풍으로 쓰러진 시모님과 노환의 시조모님을 극진히 간병, 칭송이 자자한 효부일가.

위 宗人은 寧州公의 21世 孫이며 本會 理事 金廣載宗親의 長男內外로서 平素 品行이 단정하고 근면하며 孝心이 남달리 지극하여 부모님과 조모님을 극진히 섬기고 出必告 反必面은 물론 어려서부터 孝가 모든 행동의 근본임을 명심하고 昏定晨省과 冬溫夏淸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우애 또한 돈독하여 친척은 물론 인근의 칭송이 자자하였다.

특히 金喜善宗婦는 나이 연천한대도 7년전에 시집올 당시에 벌써 3년째 중풍으로 병석에 누운 시모님과 老患으로(금년 85세) 역시 기동이 불편하신 시조모님을 7-8년을 하루같이 손발이 되어 정성껏 모시고 백방으로 약을 구해 발을 새워가며 시탕하였다.

그런터에도 백약이 무효하여 시모상을 당하니 지극히 애통해 하면서도 상장법절을 예절에 맞추어 치른 후로는 홀로 된 시아버님(廣載)과 시조모님을 전보다도 더욱 정성껏 간호하고 받드니 그 孝行을 어찌 필설로 표현하리요.

이러한 孝行은 비단 우리 順天金氏宗親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孝行의 본보기가 되겠기에 더 좀 소상하게 소개하였으면 하였으나 지면관계로 다음 기회로 미루는 아쉬움을 남기며 이만 글을 맺는다. (一無)

「族譜」복사판 재발간

1백70질, 배부완료

1984년 甲子譜를 발간한 이래 1987년에 複寫版을 발간하여 보급한바 있었다. 그러나 많은 종친들이 아직도 族譜를 모시지 못한 형편이다. 이에 本中央宗親會에서는 그분들을 위해 족보를 재발간키로 하고 1991년 7월부터 전국의 宗親들을 대상으로 宗報 제 1·2호에 재발간 계획을 公告하여 구입희망자의 申請을 접수하였다.

지난 1992년 2월 마감한 신청접수는 총 170帙에 달하였는데 중앙종친회에서는 2월말 대성인쇄소에서 인쇄를 완료하고 3월초에 帙當 5만5천원에 전량 배부하였다.

金炳鎰 재무간사 常任幹事長 補任

本會 幹事長 金鍾起宗親의 別世로 공석중이던 幹事長에 재무간사로 일해온 金炳鎰宗親이 2월 28일자로 幹事長에 補任되었다.

金炳學 校長 榮轉

金炳學 조종고등학교 교장은 지난 3월2일자로 안성교육청 學務課長으로 榮轉하였다. 전화 0334-73-9004

八旬壽宴 성황

金三田女史

지난 3월3일(음력 1월 29일)은 滿耋(元名 正吉)와 洙載종인의 자당 경주 金三田女史의 八旬壽宴이 경기도 이천군 대월면 군량리 자택에서 가족은 물론 친척, 친지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 되었다.

이 자리에 모인 하객들은 하나같이 아들 형제와 자부 趙英子, 金順玉의 효심을 칭송하였다. (一無)

송수진 여사 古稀宴 盛況

浩淵종친은 지난 1월 19일 모친 송수진 여사의 七旬을 맞아 우이동의 「고향산천」에서 고희연을 베풀었다.

이날의 고희연에는 장남 浩淵종친과 차남 泰淵종친의 친인척 및 친지들이 다수 참석하여 모친 송수진여사의 七旬을 축하하였는데 자녀들의 깊은 효심을 칭송하였다. (一無)

宗報發刊 협찬금

(1991. 9.25~1992. 3.20)

龍 薰	2만원	은평구 응암2동
永 東	1만1천원	영등포구 문래동6가
亨 民	60만원	성동구 마장동
沅 杰	7만원	안동시 운흥동
相 容	30만원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忠南·大田宗親會

壯年會
會 長 金淳元
副會長 金卓永
總 務 金柄鮮
監 事 金東源
金碩禧

靑年會
會 長 金章永
副會長 金云熙
總 務 金秉國

安養宗親會
會 長 金昌永
副會長 金延熙
總 務 金永日

「가곡공」 宗會결성

理事會구성、宗財·묘역관리

順天金氏가곡공파에서는 1991년 10월5일 가곡공宗會發起人大會(발기인대표 金商俊종안종친회 상임부회장)를 中央宗親會사무실에서 개최하고 규약을 통과시킴과 동시에 宗務의 집행기구인 理事會를 구성하였다。

이로서 종래 개개인이 두서없이 관리해오던 宗財 및 墓域의 관리를 합리적으로 宗會에서 일괄 처리하게 되었다。

또한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宗位土의 보존등 難點도 宗會名義로 등기 이전을 하게 되어 자연 해결함으로써 永久保存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다음은 同 宗會 理事會의 任員陳이다。

理事長 金鍾鎬
總務理事 金敏淵
財務理事 金景南
監事 金基淵

▲매입한 位畓을 改畓하고 있다。

顧問 金東濬
〃 金商億
理事 金福山
〃 金商俊
〃 金昇淵
〃 金昊淵
〃 金信淵
〃 金興淵
〃 金東善
〃 金東桓

金昇淵 本會고문 경향신문 會長취임

本會 고문으로 宗親會 발전에 物心양면으로 적극 協助해 온 金昇淵宗親이 지난 1월3일 경향신문 理事會에서 會長으로 선출되어 취임하였다。

고전 국역상 수상 本會龍田 金喆熙고문

본회 고문이며 민족문화 추진위원회 委員인 金喆熙 宗親은 지난해 11월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第二回 古典國譯賞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60세 이상의 원로국역자 중에서 공로가 높은 학자에게 주는 면예로운 상이다。

本會고문 金昇淵종친 産·學협기금 기탁

本會 顧問 金昇淵종친(한국화약그룹회장)은 지난 2월29일 제조업 인력양성를 원활히 하기 위한 산·학협동기금 5억원을 연세대학에 기탁했다。

萃婚

▲金운정理事님의 녀 金永美양이 91년 10월5일 오후 3시 서울 太極당 예식장에서 친척·친지가 다수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거행하였다。

▲金景南理事의 장남 지홍군이 지난 91년 10월3일 목요일 오후1시 보성예식장에서 「정혜경」양과 결혼식을 올렸다。

▲김종호 顧問 三女 「김소연」양은 1991년 11월10일 강남구 논현동의 궁원예식장에서 신랑 연재민군과 결혼。

▲金炳鎰幹事長의 三男 承載君이 92년 1월25일 오후2시 서울 太極堂 禮式場에서 新婦 張惠蘭嬢과 결혼식을 가졌다。

訃音

▲中央宗親會 幹事長 金鍾起宗親께서 지난 2월23일 오전 5시30분 75세를 一期로 안양시 석수2동 자택에서 별세、2월25일 경북 예천군 용문면 원류동 선영에 안장。 유족으로는 부인 固城李氏와 아들 光淵과 花子、美仙、美子등 1男 3女。

▲金廣載理事 夫人 全州李氏께서는 1992년 2월24일 오후7시 45분 서울 노원구 상계9동 보람아파트 207동 307호자택에서 별세。 2월26일 경기도 이천군 모가면 소사리 선영하에 안장。

▲金孝南理事 부인 靑松沈春植님께서 숙환으로 강서구 공항동 중앙병원에 입원 가료중 지난 1월13일 오전 7시에 별세 1월15일 금포군 고촌면 선영하에 안장。 유족은 1남2녀

▲대전충남종친회장이시고 중앙종친회 부회장이신 김수영종친의 부인 慶州李氏께서는 92년 1월13일 9시30분 충남대학부속병원에서 별세、향년 73세、1월15일 대전직할시 도안동 선영하에 안장。

中央宗親會 방문

本 中央宗親會 종보편집실을 수시로 방문하여 우로적려하여 주신 종친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振聲종친 始祖位土헌성

지난해이어 7백만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鐵原公 19世孫 振聲종친은 지난해 2월 佳岩里 565의 2 밭 1025평을 매입하여 始祖齋室인 同源齋 位畓 563번지 9백81평과 같이합쳐 스물세다랑이를 다섯다랑이로 改畓하고 農路도 개설하여 耕作에 편리하게 하였다。

본보는 제3호에서 振聲宗親의 이렇듯 높은 宗祖精神을 찬양하는 記事를 게재한 바 있었다。 그런데 振聲宗親은 이번에 또다시 적지않은 私財 7백만원을 獻誠함으로써 佳岩里 548번지 논 806평을 買入하여 기존의 位畓 549、553번지과 합치고 550번지와 551번지 位畓을 改畓 하는 등 爲先事業에 정성을 쏟고 있다。

◇ 중앙종친회 방문宗親

성 명	주 소
김병연	경북 문경군 가은읍 왕능리 239
김세연	고양군 벽제읍 성석1리 764
김기연	부천시 소사2동 15-21
김인배	일본 동경도 세전준구 중전정2~8~7
김휘묵	일본 신내천현 천기시마 생 구왕선사 1441-34
김천회	서울시 구로구 독산동 966 삼승APT6-603
김영배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46-12
김기수	서울시 노원구 상계 주공4단지 405-701
김호남	경북 상주시 성동동 159-1
김동기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45-4
김근회	인천시 남동구 만수1동148-1
김태열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
김경남	안산시 선부동 968-9
김영연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97
김원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7-3
김동옥	고양군 벽제읍 내유리 747-2
김 홍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618-25
김일용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199-27삼우(A)201호
김해동	서울시 관악구 봉천9동 490-34
김대연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성석리 765
김지영	서울시 성동구 군자동 330-8
김팔용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2차(A)107-1201
김지탁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2동 시영(A)99-501
김윤회	서울시 도봉구 창3동 502-14
김동창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87-9
김구연	고양군 벽제읍 성석리
김완종	전북 군산시 신창동 49-12
김형민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4 세림(A)9-807
김원걸	안동시 운흥동 139-5
김철영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320 우성(A)101-1206
김재근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목동신시가지(A)1409-1003
김병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3가 79-4 현대(A)203-403
김정회	경북 점촌시 점촌동 267-4
김상우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7-6
김인후	인천시 서구 가정동 284-365
김남수	양평군 단월면 보룡리 371-4
김계재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내유리
김상준	인천시 서구 석남동 186-6 4/3
김상익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9-119 11/2
김춘식	인천시 서구 가좌3동 224-13 19/4

辯護士 金 亨 民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층 6호
電話 02-594~3566~8
FAX 594~3568

順天金氏宗報

本宗報는 順天金氏 中央宗親會員 家口當 1부씩 無償으로 配布합니다.

發行人 金鍾植
編輯委員長 金商俊
編輯委員 金炳鎔

發行所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46-1(태평빌딩)
電話 : 02-718-0529

題字
無影 金仁厚
〈中央宗親會 理事〉

中央宗親會 창립 3년을 돌아보며

石泉 金 商 俊 〈中央宗親會 상임 부회장〉

人類社會에 커다란 問題였던 共産主義·理念社會가 와해붕괴되면서 韓半島에도 冷戰對立的이던 南北關係가 화해의 실마리를 마련하였던 신미년을 보내고 希望찬 壬申年을 맞고서 全國에 계신 宗親 여러어른께 宗報를 通하여 人事올리면서 금년에는 우리 順天金門 각 가정마다에 사랑과 平和가 충만하시고 하시는 사업도 亨通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患難을 겪으면서 離散民族으로 오랜 세월 宗親間에 斷切의 恨을 안고 있어야 했던 우리 順金이 中興의 꿈과 함께 中央宗親會를 創立한지도 三年이라는 햇수를 맞았습니다.

執行部署의 책임을 진 任員의 한사람으로서 門中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여야겠다는 의지만으로 세월을 보내고 보니 全國 宗親어른들께 悚懼한 마음뿐입니다.

그간 中央宗親會에서는 事業目標를

一、全國宗親實態파악
二、顯祖史蹟地淨化事業
三、宗報發刊
四、善孝行宗親 발굴과 표창
五、宗親奬學 事業

이상 五個事業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第一事業인 宗親實態 파악 문제는 각 지역 宗親會와 宗報를 通하는 한편 개별적인 接線方法으로 적극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公報 集計의 반수도 미달하는 약 사천여가구 정도만 파악한 실정입니다.

移散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執行部署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全國 宗親의 깊은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順金門中의 대화의 動脈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서는 宗親여러분이 많은 記事材料를 보내주시고 原稿도 보내주시여서 훌륭한 宗報가 發刊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第四事業目標인 善孝行宗親發掘表彰問題인데 이는 단순히 宗親表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하여 널리 弘報함으로서 우리 氏族의 優秀性을 二世宗親들에게 심어줌으로써 宗親善導의 산敎育으로 삼고자하는데 目的이 있읍니다.

따라서 효행·선행사실을 중앙종친회에 많이 보내주시여 表彰과 더불어 宗報를 통하여 2세들의 교육이라는 所期의 目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第五事業은 宗親奬學事業問題인데 이는 막대한 基金이 先行되는 사업이여서 제 宗親事業이 원활히 활성화될 때이면 자연히 해결될 問題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事業을 위하여 담집행부서임원전원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역부족을 自嘆하는 바입니다.

특히 基金의 不在가 지지不進한 原因이기도 하겠으나 基金確保에 많은 特志宗親의 협찬을 기대함과 동시에 全國宗親의 會費納付도 성실히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中央宗親會業務를 맡아보면서 보람을 느꼈던것은 離散氏族의 恨을 풀고자 끊겼던 뿌리를 찾기 위해 本宗親會에 찾아와서 相談한 宗親들의 系譜를 찾아준 일들이 相當數에 達한다는 点입니다.

또한 全國 각지에서 격려금 慰問土産品들을 가지고 찾아와 주시는 宗親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볼 때 보람과 감격의 긍지를 금할길없는 反面 『저들이 무슨 힘으로 中央宗親會를 持續運營할 것인가』, 『며칠 못가서 깨질 것이다』라는 부정적이고 비협조적 言辭를 하는 宗親도 간혹 있다는 말을 들을때의 실망은 말할 수 없는 서글픔을 안겨 주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宗親의 발언 또한 中央宗親會에 관심이 있기에 발로되는 표현이라고 여겨져 전연 무관심한 宗親보다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지나 앞으로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건설적인 비판으로 격려하여 주시면 운영현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현 집행부서의 임원들을 개선하게 될 것입니다.

현 집행부서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오니 부디 中央宗親會의 발전을 위해 有能한 任員이 選任될 것을 기대하면서 簡單한 業務報告와 더불어 인사말씀을 맺고저 합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적 자세로 宗務에 적극 참여를

이미 四호의 발간에 임해 우리 順金의 對話의 廣場役割을 하고 있읍니다만 현재 年 4回를 발간할 예정이였으나 年 二回 밖에 발간하지 못하고

公 告

順天金氏中央宗親會 第三次 定期總會開催公告

會則第十二條二項에 依據 一九九二年度 第三次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함을 公告합니다.

(個別通知省略)

一九九二年 三月 日

順天 金氏中央宗親會
會長 金 鍾 植

一、日時 一九九二年 四月二十六日(日) 正午(十二時)

二、場所 서울特別市 中區 長橋洞 五五番地 玄岩빌딩 二十八層 韓國火藥그룹 大講堂

連絡處 中央宗親會 電話七一八~〇五二九番

※전철2호선·을지로입구역에서 二〇〇m거리 을지로2가 중소기업은행 三一빌딩앞

三、參席範圍

1、中央宗親會 全任員 및 代議員
2、全國地域宗親會 任員과 뜻있는 宗親

四、議 案

1、會則 改正의件
2、第三期 收入支出決算報告
3、第四期 豫算案 審議
4、任員 改選의 件
5、宗報續刊에 따른 財政稔出方案
6、其他 事項

全國地域宗親會長께서는 「順天金氏宗報」가 到着되는대로 宗親 및 全任員께 널리 連絡하여 많이 參席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